

【 해외금융뉴스: 일본 】

인터넷 생보사의 원가 전면 공개에 생보업계 반발

□ 올해 봄 개업한 인터넷 전문 생명보험회사인 라이프 넷 생명보험(ライフネット生命保険株式会社, www.lifenet-seimei.co.jp)은 최근 업계 최초로 모든 보험상품의 원가를 공개해 향후 귀추가 주목됨.

- 11월 21일 중간결산 발표에 맞추어 모든 보험상품의 원가를 홈페이지에 공시한 라이프 넷 생명보험은 온라인 판매망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인건비와 판매점에 지불할 수수료 등이 전혀 들지 않는 만큼 부가보험료가 경쟁회사들에 비해 저렴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힘.

라이프 넷과 경쟁보험사 상품의 보험료 비교표(예시)

라이프 넷 보험 상품		경쟁 A社 보험 상품
약 1,923엔	순보험료(양사가 동일하다고 가정) 부가보험료	약 1,923엔
약 657엔		약 3,600엔
약 2,580엔	월보험료	약 5,523엔

주 : 40세 남성이 10년 만기 1,000만 엔 사망보험(정기)에 가입하는 경우의 예임.

자료 : 라이프 넷 홈페이지 공시(付加保険料率(生命保険の「原価」)の開示について) 참조

□ 이번 라이프 넷의 원가 공개 조치에 대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, 대다수의 보험회사들은 이로 인해 지나친 가격 인하 경쟁이 확산되면 서비스 질 하락과 보험회사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.

- 경쟁 보험회사들은 부가보험료 안에는 일대일 컨설팅과 콜센터 운영 등의 각종 고객 관련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보험회사의 노력이 들어가 있는 만큼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 인터넷 전문 보험회사 상품과 차별된다고 강조함.
- 생보업계는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들이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여 지나친 가격 인하 경쟁을 피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더 이상의 원가 공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
(라이프 넷 홈페이지 관련 공시,
FujiSankei Business | 12/16)